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연지동, 제5호

치매안심마을 운영 시작

정읍시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달 31일, 연지동 실버공공주택에서 ‘2025년 제5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 또한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으로 치매안심센터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치매 선별검사와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 △실종 예방 목걸이 보급 등 안전망 구축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17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6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재정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비 5000만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중대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부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군은 앞으로도 분기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군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니어 의사 ‘주목’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부보건지소 방문… 의료 공백 해결 위해 현장서 “적극 검토”

정읍시가 농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시니어의 사 운영 모델이 정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부보건지소를 방문해 농촌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경험 많은 의사들의 활동 현황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병관 전 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전 정읍아산병원장), 이필량 충남 보령 아산병원장이 함께했다.

시는 읍·면지역 15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맡아왔던 공중보건의사 배치수가 최근 3년간 절반 이하로 줄어 오울해에는 배치 가능한 의사가 1~2명 정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해 11월, 전국 최초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장에서 임경수 지소장과 이필량 병원장은 “정읍은 정이 많고 음식도 맛있어 시니어 의사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도시”라며 “여건만 갖춰진다면 더 많은 시니어 의사를 섭외해 정읍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계속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택 제공과 인건비 예산 지원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현재 전국 시니어 의사 수요를 조사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보건 의료원뿐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시니

어 의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부보건지소를 찾은 한 주민은 “시니어 의사 배치 이후 진료 항목이 많아지고 고혈압·당뇨 등 건강 교육까지 받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니어 의사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뜰마루 지방정원-자연마당 잇는 보행교 설치

부안군, 5월 제12회 부안미실축제 전 완공 목표… 주민 편의 확보

부안군이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과 자연마당을 잇는 보행교를 설치한다.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2023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으며 총면적은 33만4536㎡로 부안 터미널과 인접하고 부안읍 시내권과 연결해 교통 및 접근성이 좋다.

또 신운천 생태하천과 부안 자연마당을 포함한 생태 네트워크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신운천 산책로는 2.1km의 낙우송길이 조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매

일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뜰마루와 자연마당을 상호 이동할 수 있는 다리가 멀리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불만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해뜰마루와 자연마당을 잇는 폭 4m, 길이 27m의 보행교 설치를 위한 예산을 건의해 2023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10여원을 확보하고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에 명시된 사업비를 2024년 1월부터 설계용역 추진, 원가심사 등 행정사항을 이행한 후 공개경쟁입

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행교는 신운천이 시작되는 초입부에 조성된 뱃머리 조형물을 모티브로 신운천을 따라 흘러가는 배를 형상화했으며 배 위에 설치된 돛에 조그마한 망루를 계획해 전망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망루까지의 높이는 3m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주변 일대가 평지인 점을 감안해 조망이 가능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사를 위한 가도 설치 후 교각 설치를 위한 파일 박기를 시행했으며 파일 위에 교각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행교와 배 모양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한 후 데크 설치를 위한 각관 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망루를 올리는 회전계단과 바다 데크작업 등을 시행하고 하천을 막고 있는 흙을 걷어낸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면 모든 작업은 끝이 난다.

이 모든 작업은 오는 5월 열리는 부안 최대 축제인 제12회 부안미실축제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보행교가 완료될 경우 낙우송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확보 등 1석 2조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고창군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는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살핀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자격과 급여변경 예상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박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구제와 복지지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가동

정읍시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방역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밀집 사육지역을 대상으로 순정축원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체계적인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렘피스킨병(LS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 방역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78호의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3개소, 밀집 사육지역 4개소에 7개 방제반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투입하고 연 24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역 장비와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밀집 사육지역은 가금류 운반 차량의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활용해 철저히 소독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도 아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집중 방역을 통해 축산업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방제단 운영과 함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도 배포해 농가의 방역 인식을 제고, 자발적인 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은 사전 대응과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자원공사와 10년 위탁 상수도 재협약

정읍시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위탁 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재협약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상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수도 계량기 등을 포함한 지방상수도 전반의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게 된다. 위탁 운영은 2025년 4월부터 2035년 3월까지 10년간 진행되며 시가 소유한 상수관로 2002km,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60개소, 수도미터 약 4만 6475전 등이 관리 대상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누수 저감과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년간 정읍시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며 유수율을 51%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막대한 물 손실을 줄이고 운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 성과다. 또한, ‘수도물 안심서비스’와 같은 체계형 수질정보 제공으로 수도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다.

시도 이에 발맞춰 상수도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에 달한다. 특히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산내면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정읍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100%를 달성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